

아동호스피스

5. 호스피스 환아의 죽음에 대한 반응

최초의 진단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충격, 무기력, 및 혼란의 과정을 지나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투병생활을 거치면서 질환이 재발하거나 혹은 질환이 예상한대로 나쁜 진행경과를 취하는 경우, 혹은 주위에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아가 죽는 것을 보면서 환아와 그 가족은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감하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아는 정상아와는 달리 죽음개념의 발달이 가속화되므로 자신의 질환의 위중함을 빨리 감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부모보다 먼저 더 정확히 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환아들은 불안반응이 나타나며 주위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비록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도 혼자라고 느끼는 상실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편적으로는 아동의 인지발달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으나 만 8세가 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환아가 죽음과 연관된 복합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불필요한 두려움, 죄책감, 및 불안을 경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 계속-

(자료제공 : 편집부)

가 더 많고, 자기가 주거나 베푼 것에 비하면 그들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자들이여. 주위를 둘러 보라. 그대가 괜찮다고 여기는 선생님들치고 한결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는 겸손함과,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가는 따듯함일 것이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 사실을 기억해보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생명과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우리가 거저 받은 대로 우리들의 이웃,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거저 주자.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 돈, 그리고 애정을 그들에게 거저 주자. 인간들이 만남으로 성숙하는 데, 우리가 호스피스 환자나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진료 팀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자. 예를 들면, 무척이나 아픈데 나를 받아 드려 당신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게 해줌을 감사하자. 그리고 힘들지만 그들과 같이 아픔과 고통을 나눠 갖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 순간에도 아픔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심과, 당신의 손길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 드리자. 건강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음이 확실하다면, 아픔과 고통 중에서, 외로움과 고독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음을, 그리고 임종의 순간일지라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가 옆에서 지켜 봐 주고, 기도해줌을 행복하게 느끼며 떠날 수 있음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무언이지만 따듯한 손길이나 눈빛으로라도 알려주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편안히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아 얼마나 행복한가. 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가! ♥